

● 교육부총리, 고등교육 협력 확대·유학생 유치 등 '교육외교(Education Diplomacy)' 에 나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난 3월 24일 시작된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사우디를 공식 수행하여,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고등교육협력 MOU'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MOU는 고등교육기관 간 인적교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강점 분야인 IT를 비롯하여 공학·기초과학·경영·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급 인력을 외국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우리나라에 국비유학생 84명을 파견할 예정이며, 올 2월에는 사우디 고등교육부 장관이 대학총장단과 함께 방한하여 향후 국비유학생 파견 규모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총리는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카자흐스탄 국비유학생의 한국 파견 확대 논의와 함께, 아스타나 대학단지 건설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IT·기초과학 분야 우수대학 분교 설립 및 컨설팅, 전문교수·강사 파견 등)을 협의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05년부터 '볼라삭(미래'라는 의미) 국비장학생 제도'를 통해 연간 3천명 규모의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 한국을 볼라삭 파견 대상국에 포함시킨 바 있다.

● '3불정책' 관련 기자 브리핑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중앙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3불정책'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 기자 브리핑 자료 전문

- 최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및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위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여 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계속해서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 입학 기회를 교환하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은 물론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지난 60~70년대 경험했던 중·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 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됩니다.
- 본고사는 국·영·수 위주로 대학 입학이 이루어져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 심화 등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가 우려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학습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2008 새 입시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대학의 규제 혁신을 위한 '대학자율화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6명 등 총 21명으로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를 포함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며 수요자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여 대학 자율화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자율화위원회는 교육과정, 학사 운영, 재정 운용, 학생 정원, 교원 인사, 사학법인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 검토하여 자율화 과제를 선정·건의하게 된다.

한편, 대학에서 인식하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이미 자율화에 대한 수요 조사가 진행(2007. 2. 28~)되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요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학 등으로부터 수렴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자율화 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교육부에서는 선정된 과제를 검토하여 5월에 자율화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교육부-과기부 우수 과학인재 양성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2007년 제 1차 교육부-과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우수 과학인재 양성, 인문·사회학과 과학의 연계'를 위하여 6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한 합의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고급 인력 양성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양 부처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정책 협력 분야는 우수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교육 활성화를 포함한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수인력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공동 T/F 운영

이공계 전공자의 사회적 진출 다변화 및 경력관리, 과학 기술인에 대한 비전 제시, 청소년과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에서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등을 통해 대책 마련

• 인문·사회학과 과학 간의 소통 촉진

이공계 연구자를 위한 인문·사회학 강좌를 운영하고, 인문·사회학과 과학의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를 지원, 이를 통해 최근 다양한 분야의 넓은 시각과 균형 감각을 갖춘 '전구형 인재'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에 양 부처가 공동 대응할 예정

• 4월 과학의 달에 우주인을 활용한 과학교육 활성화

우주인을 주제로 과학교실을 개최하고, 우주인 탐승·귀환을 계기로 우주과학 실험, 우주인 생활 등의 동영상 제작·배포

• 정부지원 장학금의 원스톱 종합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이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장학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장학금 종합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공동 지원**
대학연구실의 안전한 연구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실안전법'의 안전관리 이행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학 등의 연구 실험실 안전관리 책임자 워크숍 개최

●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파견을 중등으로 확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 노하우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사업의 파견 지역을 아시아에서 중 등으로 확대

●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한 교육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의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확정· 발 표하였다.

택지 개발 지역의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 해 115개(11,784억 원) 학교를 신설하고, 노 후학교 70개(3,186억 원)를 개축하며, 교육과 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체육관 298개(5,003 억 원)를 신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울산 지역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 공을 위해 2,500억 원을 투입하여 대학 신설로 서는 국내 처음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에 의해 울 산국립대 신설을 추진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교 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서울대 기숙사 재건축 사 업에도 8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민간자금을 투입 하여 사회기반사업을 건설한 후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이전(Transfer)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받고, 정부·지자 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 하는 사업방식이다.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은 열악한 지방 교 육재정 여건상 신설 학교 투자가 지연되고 있 는 어려움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임대 방식으로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 할 수 있다.

● **경인교대부설초교 등 32개 국립대 부설학교 에 특수학급 설치·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5년 11월 고등 교육법 개정으로 국립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한국교원대 등 22개 국립대학의 39개 부설학 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금년도 에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를 비롯한 32개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학급당 특수 교사 1인씩을 배치하고,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 구입을 위하여 1개교당 5천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 거나, 교실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을 미설치한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 7개교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장애학생 선 정·배치 및 교실 확보 등 교육여건을 마련토 록 하여 2008년도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계 획이다.

또한 일반 학교에 배치되는 장애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2007년도에는 유·초·중·고등학교에 350학급의 특수학급 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 **국립대학법인화법 입법 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9일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 법 예고하였다.

국립대 법인화는 현재의 정부 조직 형태의 경직적·타율적·현상 유지형 운영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성을 갖춘 변화 지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특성화된 교육·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국립대 법인화 법안 주요 내용

□ 지배구조(Governance)

- 총·학장이 국립대학 법인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책임을 짐.
- 이사회, 교육연구위원회, 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국립대학 운영체제 구축

□ 재산 및 회계

- 국립대학 법인이 소관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 정부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예산 편성·사용 등 자율권을 보장
- 대학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기차입 또는 학교에 발행 가능
-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

□ 지원 및 육성

-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화
- 정부의 기초학문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특별법안에 규정

□ 고용 및 연금 보장

- 법인화 이후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법인 소속으로 고용 승계
- 법인화 이전의 당해 직급의 정년 보장하되, 법인의 정년이 장기인 경우 법인 정년 적용

● 울산과기대, 국내 최초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근거 법률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근거 법률 제정은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립대학 법인화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산 지역 국립대학 신설을 법적으로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하나의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 정부와 울산광역시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관련 예산 확보, 학교부지 선정, 기본 설계·시설 계획 확정 등 그동안 주요 대학의 물적 여건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설 사업이 금번 근거법률 제정을 계기로 총장 선임, 법인 설립, 학사 편제 확정 등 국립대학 법인의 운영체제 확립 측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시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부합하도록 이공계 및 기술경연계 학사 조직 편제를 갖추고, 산·학·연 협력 특성화 모델 대학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며, 조직·인사 및 예산 측면에서 대학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대거 도입하여, 국립대학 운영 모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7년도 대학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전산망 56억 원 등 대학정보화에 113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대학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대학이 정보화를 통해 교육, 학술·연구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전산망 운영 지원, 대학 이러닝지원센터 구축 지원,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전산망 운영 지원 사업은 1992년부터 전국 대학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교육, 연구·학술 정보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전용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전산망은 국내 유사 통신서비스 중 저렴한 통신서비스로 정부 지원과 사용량에 따른 각 대학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말 전국 386개 대학이 교육전산망을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 이러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03~2007년까지 전국 10개 권역별로 센터(대학)를 지정하여 권역 내 대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3개 권역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역별 센터는 교수·학습 지원 통합 시스템, 스튜디오형 강의실 등 이러닝 기반시설을 갖추고, 권역 내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콘텐츠 개발·활용 등 이러닝을 활용한 대학 간 학점 교류와 지역사회 등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까지 전국에 7개의 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03개 콘텐츠 개발과 총 1,035 강좌를 개설하여 94,641명이 수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은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정보보호 활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OECD 전문가평가단, 한국 고등교육 분석 결과 발표

OECD는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OECD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다.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은 OECD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목적은 회원국들의 고등교육 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수준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OECD 외부 전문가검토단이 제시한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언은,

- 고등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질 관리 체계 구축, 고등교육에서의 형평성 제고, 국립대학 법인화 등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이다.
- 노동시장과 고등교육과의 연계 강화와 관련하여,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 학생 대상 노동시장 정보 제공 확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자격증 및 학위제도 구축, 대학이 수여하는 자격 및 학위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인 국가적 수준의 질

관리 기관의 설립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대학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하는 국립대학
법인화 등은 바람직하고, 고등교육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 조정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규제에 있어 통계자료
확충, 질 보장 기제, 기관 자율평가, 자격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연성적 접근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
생의 가정 배경과 과정 이수율 간의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제언
을 하고 있다.
-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대학의
연구개발 참여는 중요하나 대학은 일차적
으로 기초연구와 대학원을 통한 연구후속
세대 양성에 초점을 둘 것과 연구중심 대
학 수의 확대보다는 연구의 특정 영역, 특
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 분야 확대가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기타 정책 제언으로 질 관리 지표 개발, 대
학(특히 전문대학)에서의 평생학습기회 확
대, 질 낮은 외국 교육기관의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한 학위관리 시스템 구축, 고등교
육 국제화 역량 제고 등이 있다.

●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28일 한양대학교
에서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연간 600억
원, 2004~2008년)'의 성과 발표와 함께
2007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동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교육부, 대학의 기획처장 및 특성화 사업단장,
국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되었다.

※ 우수사업단별 특성화 사업 주요성과 사례

신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발표회에서 2007년
도 신규사업단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사업추진방향

- 신규사업단(총 180억) 수 : 자유과제 12개교
내외, 지정과제 3개교 내외
- 사업 방식 : 종전 단년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다년 지원으로 전환하여 향후 2년간 사업비
지원
- 선정 기준 : 대학별 특성화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대학특성화지표'를
처음으로 적용
- 지정과제(안) : 국제개발협력, 한문고전번역
등 사회수요를 반영한 지정과제 추가 개발

*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초에 구체적인 금년도 사
업계획을 확정 · 공고할 계획이다.

● 여대생들의 진로 · 직업 역량 강화, 대학이 나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28일 2007년도
여대생 특화 진로 교육과정 개설 지원 대학으
로 2006년 시범운영 대학(8개)과 2007년 신
규 지원 대학(16개)을 포함하여 총 24개 대학
을 선정 · 발표하였다.

동 사업은 취업과 관련된 일회성 행사를 지양
하고 여대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면서, 조기에 진
로를 탐색하고 직업 기초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사업단명 (과제 분야)	주요 성과	총 지원액 (백만 원)
중앙대(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구조조정을 통한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신설 • 공연 제작에 필요한 19개 분야의 매뉴얼 개발 • 산학협력을 통한 MOU 체결로 우수인력 확보 	10,070
한양대(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L 기반 URIP(Undergraduate Innovation Program) 운영 • 해외 Road Show를 통한 해외 우수학생 유치(5명) • 대학 학술지 국내 최초 SCI 등재 	9,770
아주대(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교육 프로그램(팀프로젝트, 통합설계형) 운영 - 11개 교과목 개설, 팀프로젝트 97건, 학생 만족도(84.7%) • IT 해외 장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우수학생 유치(13명), 해외 인턴십(3개국, 학기별 25명) • IT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장단기 인턴십(10개사 21명), 산업체 전문가 초빙(6건) 	4,432
한세대(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학부 교육과정 개편, 친환경 융합 교육과정 개발 - 친환경 디자인 10개 과목, 친환경 융합 교과과정 20과목 • 우수학생 장학 프로그램 운영 - 국제가구전시회에서 최고디자인상 수상(2007. 1. 20, 독일 쾰른) • 산학협동프로젝트 운영 - H&Y(한세대 & 유한김벌리) DTP 디자인 개발 연구소 등 총 20여 건) 	2,000
경희대(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노력 - 외국인학생 전용 과목(15개 과목 개설) - 복수학위제 협정 체결(34개 대학), 국외 인턴십 협정 체결(7개국 13개 대학), 학점교류 교환학생 협정 체결(3개국 4개 대학) - 외국인 신입생 유치 50명(2005~2007년) 	1,240

록 정규 교육과정(교양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007년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23일 원격대학에 대한 종합평가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원격대학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07년도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은 원격대학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17개 전

체 원격대학에 대한 교육과정, 수업, 경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품질관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원격대학이 양질의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체 발전 전략을 기초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1년 원격대학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되는 원격대학 종합평가는 교육과정, 수업, 인적·물적 자원,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당 원격대학에서는 2~3개월 동안 대학 자체 평가연구를

[2007년도 여대생 특화 진로 교육과정 선정 대학 현황]

유형	대학	대학 교육과정명	개설 과정 수
2006년 시범 운영 대학 (8개)	동국대	여성의 진로 탐색과 커리어 개발	1
	서강대	여성과 취업	1
	연세대	직업세계와 여성의 진로 설계	1
	충북대	여성취업 파워플랜	2
	경북대	여대생 진로 설계와 실천전략	1
	동의대	여대생 커리어 탐색/여대생 커리어 도전	2
	순천대	여대생 리더십 향상과 성공취업	1
	원광대	여대생 직업과 진로	2
2007년 신규 지원 대학 (4년제, 10개)	덕성여대	여성의 진로 설계와 탐색	1
	이화여대	글로벌 리더십과 커리어 개발	1
	건양대	여대생 경력 개발과 사회 진출	2
	상지대	현대여성과 직업세계	1
	세명대	여대생의 진로 설계	1
	계명대	여대생 진로 선택과 커리어 개발	1
	동서대	여성과 진로 I, II	2
	부산대	여성과 직업/여성의 커리어 개발	2
	제주대	여대생을 위한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2
	조선대	여대생 진로 설계와 취업 I, II	2
2007년 신규 지원 대학 (전문대 6개)	동서울대	여대생 진로를 위한 관리 능력 개발	2
	장안대	여대생 자기주도형 진로 탐색·경력 개발	1
	강릉영동대	여대생 기초 직업능력 개발	1
	공주영상대	직업과 pro women	2
	안동과학대	여대생 진로 개발과 리더십	1
	경남정보대	여성 커리어 디자인 I, II	2

실시하고, 원격대학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격대학 평가위원회'에서 5월 중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번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평가 결과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및 소외계층 직업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실 있는 평가체제 구

축을 위해 2006년 4월~11월에 평가지표 초안을 개발하고, 17개 원격대학의 의견 수렴 및 4개 원격대학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 고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15일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고시'를 발표하였다.

동 내용은 지난 1월 16일 행정 예고한 사항

으로 2월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이번
에 이를 확정,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
터 언어 영역의 문항 수가 현행 60문항에서 50
문항으로 10문항 축소하고, 시험기간도 현행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단축된다.

축소하는 10문항은 듣기, 쓰기, 읽기 등 각
내용 영역에서 고르게 분포시켜 내용 영역별
문항 수 비율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할 계획이며, 듣기 문항도 이에 맞게 현행 6문
항에서 5문항으로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언어 영역 문항 수
축소를 통해 수험생의 1교시 시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출제 측면에서도 시간 부족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양질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금년 11월
15일(목)에 실시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에서는 지난 3월에 '2008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2006년 교육대학교·교대 교육대학원 평가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
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상호 협력하에 2006
년 전국 11개 교육대학교·교대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개 교육대학교·교대 교
육대학원에 대하여 전문가 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7개 영역별로 서면 평가 및 현지방문
평가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평가는 영역별 결과 및 종합 결과로 구분하
여 평정하고 모두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 요망'으로 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 내용은 교육대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및

수업 영역, 교수 및 학생 영역, 지원체제 영역,
대학 발전 노력 영역의 4개 영역에 41개 지표
로 이루어졌다. 교대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교육
과정 및 수업 영역, 인적 구성 영역, 교육여건
영역의 3개 영역에 17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교육대학교의 평가 결과, '최우수'는 경인교
육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이고, '우수'는 광
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
교, 청주교육대학교이며, '보통'은 '부산교육대
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
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이다, '개선 요망'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교대 교육대학원의 평가 결과, '최우
수'는 경인교대 교육대학원과 청주교대 교육대
학원이고, '우수'는 공주교대 교육대학원, 광주
교대 교육대학원, 부산교대 교육대학원, 서울교
대 교육대학원이며, '보통'은 대구교대 교육대학
원, 전주교대 교육대학원, 진주교대 교육대학원,
제주교대 교육대학원,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이나,
'개선 요망'은 역시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에 탑재하고 전 교육대학교·교대 교육대학원
및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교육대학교·교
대 교육대학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해당 교육대학교·교대 교육대학원에 평
가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발전계획 수립에 반
영토록 하고 2009년부터 도입 예정인 '교원양
성기관 인정제'에도 대비토록 하였다.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7일 프레스디언트
호텔 신세계홀에서 전국 지역인적자원개발
(RHRD)지원센터 협의회와 공동으로 '2006
년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
하였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역 인재 양성 및 주민의 능력 개발을 통한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11개 RHRD 지원센터)의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 인적자원 개발 협의회'와 'RHRD지원센터' 등 지역별 추진체제 구축,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연간 50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지역혁신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100억 원으로 증액 지원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시·도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별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 정착 및 자녀 정체성 강화사업, 군 인적자원 개발 지원 사업, 인적자원 DB 구축 사업 등 3개의 공통사례와 각 지역 특화사업 8개 등 총 11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정책과의 연계 강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수(RHRD-Index)를 활용한 지자체의 투자 유도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누리(NURI) 사업, 3년간 사업실적 종합 분석·평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3년간(2004. 7~2007. 5)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중간평가 실시와 누리 사업 관리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누리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중간평가는 누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1

개 사업단에 대하여 올 5~6월에 거쳐 현장점검, 서면평가, 질의·응답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유형별 하위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우수사업단에는 인센티브(사업단 사업비의 10% 내외)를 부여한다.

이번 중간평가에서는 누리 사업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달성과 향후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 및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틀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정착을 위한 2단계 누리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 **누리 사업 중간평가의 특징**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실적, 대학의 비교 우위 분야 육성을 위한 특성화 노력,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실적, 그리고 대학 및 사업단의 지역발전예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RIS(지역혁신협의체) 평가 20% 범위 내에서 반영

※ **누리 사업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설립(2006. 8)된 BK21-누리관리위원회(BNC)의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 사업단의 누리 사업비 집행을 전문적으로 관리·조언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 점검을 민간회계법인에 아웃소싱
-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상시컨설팅단 운영을 개선하여 학문 분야별 전문가와 더불어 사업관리 분야 전문가(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등)를 보강하고, 사업단이 필요에 따라 컨설팅 위원을 선택하여 조언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DB화하기 위하여 BNC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편, 중간평가는 평가계획을 평가 개시일 60일 전에 각 사업단에 공지하여 4~6월에 걸쳐 요건심사(현장점검) 및 서면평가(사업단 질의·응답 포함)를 실시하고 6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업단의 이의신청 및 처리가 끝나는 7월 중에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국가 통계 강화, 인적자원 통계 협력망이 앞장**
-1월 30일, 인적자원 통계 관련 17개 기관 MOU 체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부출연기관 등 17개 기관들의 '인적자원 통계 협력망 운영에 관한 MOU 체결식'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통계의 공유와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체결식은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적자원 정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인적자원 통계 생산 주체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협회 등 17개 기관들이 자율적인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부처를 초월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국가통계 발전과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학술 연구와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형 통계제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통계에 있어서도 다수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생산·관리되어 일관성 결여, 유사 중복 조사, 신규 통계 개발 부족, 통계 활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서에는 인적자원 통계 정보 현황 조사, 통합·조정, 통계 지표 및 기준의 표준화, 인적자원 통계 동향집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궁적으

로 모든 정보를 '인적자원 통계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산형 통계 체제로 인한 단점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계 수요자는 신뢰도 높은 인적자원 통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OU 참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이상 가나다순 17개 기관)

● **한국형 MBA과정 성공적으로 정착 중**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학기부터 시작한 '한국형 MBA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MBA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부문에서는 응답자 351명 중 '보통'이라고 답변한 117명(33.3%)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302명(86%)으로 한국형 MB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만족(보통 포함 8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갖추어져 있다(33.3%)'와 '부족하다(34.2%)'는 의견이 비슷해서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이 6개월밖

에 되지 않아 일부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될 것(보통 포함 90.4%)이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설된 교과목들이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것(보통 포함 89.2%)'이라고 반응해 수업 내용 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부문에서는 학생들은 교수들이 강의과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98.3%)으로 보고 있으며, 다양하고 적절한 교수방법이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90%)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제공되는 강의가 MBA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한 수준과 질을 유지(85.5%)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영어강의에 대해 대체로 만족(77.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등록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학생들은 등록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48.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지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학생들은 강의실의 교육기자재에 만족(82.6%)하고 있으며, 첨단강의실, 원형강의실, 소그룹 학습실 등 교육시설 보유에 대해서도 만족(74.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36.5%)'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25.4%)'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보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한국 기업에 취업'과 '적합한 장학조건'을 들었으며, 대학생생활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을 지적하였다. 대학교육